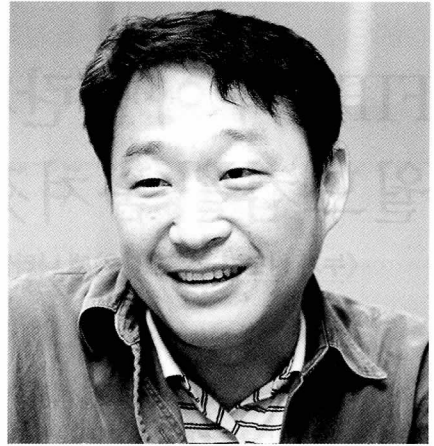


이 수학자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

《축구공 위의 수학자》 쓴 강석진 교수



강석진 교수

강석진 교수(42, 고등과학원 수학과)는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광이다. 어려서부터 축구선수를 꿈꿔왔고, 서울대 재학시절에는 자연대 축구부 선수로, 모교 수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에는 7년간 축구부 감독을 맡아 맹활약했다. 몇 년 전에는 축구에 얽힌 개인사를 기록한 《축구공 위의 수학자》(석필, 현재 절판된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곧 개정판이 나올 예정임)를 펴내기도 했다. 월드컵이 다가오는 요즘은 거의 막노동하듯이 글을 쓰고 있다. 그가 축구에세이를 연재하는 매체는 무려 일곱 군데나 된다.

또한 강교수는 주목받는 젊은 수학자다. 1999년에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수학의 본토'인 미국 대학원의 수학교재를 직접 저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연구환경이 부실한 서울대를 떠나 고등과학원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내게 축구는 모든 비유의 원천” 축구와 수학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는 이 '운동권' 교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가정법은 매혹적인데,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암호를 풀어내는 천재수학자처럼 강교수도 인간의 야성적 육체가 무한대의 변수로 맞부딪치는 축구의 흐름 속에서 위대한 수학공식을 발견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아니다. 그는 축구는 축구고 수학은 수학이라고 엄밀히 구분한다.

다만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는 데 축구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다. 그리고 그의 주특기인 '헤딩' 처럼, 날쌔고 정확하게 숫자와 논리들을 헤집고 다니는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래서 강교수는 자신을 '프로 수학선수'라고 부른다.

“제겐 축구가 모든 비유의 원천입니다. 축구선수들은 서로 알력이 있더라도 경기가 시작되면 약속된 대로 패스하고 움직입니다.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죠. 수학도 그런 비유를 들어가며 가르치면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강교수는 오로지 축구에 몰두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정글 수비를 별목하듯 헤쳐나가던 펠레에게 반한 후 축구 국가대표선수를 미래의 목표로 정해버렸다. 급식비로 산 축구공을 점심을 훔어가며 찼고, 일간지, 스포츠신문, 《월간 축구》 같은 잡지를 보며 축구의 모든 것을 알아갔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 '진짜 선수'들에 치이면서 몇번의 좌절 끝에 그는 무너졌다. 그때

수학이 상처받은 강교수의 영혼을 감싸줬다.

“수학은 창조적 직관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펼쳐지는 공간이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열두번도 더 포기하고 싶죠. 그러면 옛날을 떠올립니다. 내가 축구를 그만둘 때, 과연 최선을 다한 뒤였나 하구요.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더군요.”

축구는 자기를 절제하고 책임감을 기르는 수련

축구선수를 향한 꿈이 좌절된 것이 현재의 그를 만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강교수가 축구를 포기했다는

말은 반쪽만 맞다. 아마추어로서는 선수와 감독까지 지낸 백전노장이다. 강교수는 1982년 서울대 총장배 축구전을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기억한다. 실력이 막강한 농대 대표팀과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그는 여기서 우승골을 터뜨렸다.

“레프트윙이 공을 올려줬는데, 미드필드부터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세명을 짓히고 짜릿한 대각선 중거리포를 쏘죠. 드리블할 때부터 ‘아! 이거는 들어갔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군요.”

강교수 일생 최악의 순간도 역시 총장배를 놓고 겨루던 1997년이었다. 이때는 감독이었는데 승부차기에서 서로 10골씩을 주고받는 피 말리는 승부 끝에 지고 말았다. 하지만 와신상담 끝에 2000년에는 우승컵을 거머쥘다.

요즘도 그는 매주 화요일마다 축구부 연습에 참가한다. 그가 축구를 사랑하는 방법은 '직접 볼을 차는 것'이다. 경기를 볼 때도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좋다. 아르헨티나 사비올라의 팬이며, 국내선수는 안정환을 좋아한다.

“축구선수들은 대부분 착해요.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이죠. 또 단체로 움직이는 것은 책임감을 길러주죠. 나는 멀었어요. 요즘도 경기하다가 누가 반칙하면 불쑥 욕이 나오거든요. 인간 되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중심에 선 축구철학이 빨리 정착됐으면 하는 그의 바람과도 통한다. 특히 요즘은 축구가 갈수록 치졸해지는 경향이 있어 우울하다고 한다. 축구 얘기만 나오면 눈빛을 반짝이는 그에게 '축구의 타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성민기자